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크레인 해체·수색 재개 속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원인 규명 위한 수사 본격화

경찰, 서울 본사·광주 서구청·설계사무실 등 전방위 집행 콘크리트 시공업체 불법 하도급·동바리 제거 의혹 등 수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당국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시 서구청, 자재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먼저 19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서울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내 건설본부 사무실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계약, 자재, 기술, 안전 등의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신축 공사와 관련해 접수된 주민 민원과 8차례의 절전 서구청의 현장 안전진단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신축 공사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실과 공사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건물 붕괴 원인 규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이후 17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는 점에서 줄곧 지적된 콘크리트 양생(養生)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타설 당시 만들어진 공시제 27개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공시제는 콘크리트 타설 당시 일부를 채취해 현장사무소 실험실 내에 28일 동안 보관하는 샘플로 건물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강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경찰은 현장소장 A(49)씨와 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5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감리 3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아울러 콘크리트 시공 업체 불법 하도급 여부와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타일 공사를 위해 하중을 건다는 동바리를 제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 타워크레인 해체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몰사 수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구조대를 지상층에 투입하기 위해 붕괴 아파트 내부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다”며 “전진 지휘소 설치의 지난 18일 완료했으며, 오늘까지 장비 배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구조대를 지상층에 투입하기 위해 붕괴 아파트 내부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다”며 “전진 지휘소 설치의 지난 18일 완료했으며, 오늘까지 장비 배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1일까지 타워크레인 해체를 끝내겠다”며 “메인 마스터(주 기둥)는 남겨둘 것”이라며 “조종실과 27t 짜리 무게추, 기중기 팔뚝 등 상단부만 해체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5명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부층 잔재를 제거해 타워크레인 해체 이후 추진될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1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충원율 50%로 올려야”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정책청원문 발표

비수도권 지역의 총장들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충원율을 50%로 올리고, 정원감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비율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19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청원문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중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소문관에서 정책청원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에 관한 청원문을 발표했다. 5대 정책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

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 온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20년 후 비수도권 대학, 전남대 규모 35~40개면 충분”

전남대-광주전남혁신플랫폼 광주전남고등교육정책포럼

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비수도권에 전남대 규모의 대학 35~40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와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이 지난 18일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8~24세 인구 및 대학 재적 인구는 급감기와 폭락기를 거쳐 2042~2050년에 비수도권에는

전남대 규모의 대학 35~40개 정도면 충분할 정도”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는 “대학생을 꼭 나이 20세 전후라고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대학의 규모와 기능, 교수상(像)도 재정립하는 등 우리나라 대학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판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전남대 정성택 총장은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뒤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에 몰린 대학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다양한 학생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대

학 본연의 가치와 사명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덕목일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한국에너지공과대 윤의준 총장은 “이론 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는 실천형 고급인력을 길러내기 어렵다”며 “조그만 문제라도 해결해 본 경험이 중요한 만큼 대학에서 문제 해결역량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포대 박민서 총장은 “국가재정지원사업이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온라인 도시재생 대학’ 무료강의

28일까지 유튜브 통해 참여 가능...시청 인증 이벤트

광주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2022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대학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주관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 대학 온라인 강의 시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검색하면 된다.

강의내용은 도시재생의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이며, 기초분야는 박주연 승정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의 ‘광산구 승정역세권 도시재생 사례 공유’ 등 5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또 심화 교육과정에는 이명규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의 ‘도시재생의 이해’,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 등 5개의 강좌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광주대는 강의 시청 인증 사진 전송 이벤트를 마련, 총 100명에게 액상커피세트와 도시락 등을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은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 전화(062-670-2836)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청 365일 민원봉사실, 설 연휴 정상 운영

인감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등 오전 9시~오후 5시

설 연휴 기간에도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이 쉬지 않고 문을 연다.

서구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상무지구에는 ‘365일 민원봉사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동안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 등이다.

다만 미발급되는 제 증명도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062-350-4652)로 문의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나해 설 연휴 기간에도 급하게 불 일이 있는 주민들이 365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면서 대단히 감사해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